

# Halfway house 단기집중재활서비스 효과성 분석 - 누리봄 시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Halfway house NURIBOM's short-term intensive rehabilitation service

조현구<sup>1</sup>, 이민재, 정순영  
HK Cho MSW, MJ Lee MSW, SY Jeong MSW

## 초 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일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사례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단기집중재활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용자, 유관기관 실무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각적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통해 의료지원형 사회복귀 시설의 효과적이고 특성화된 재활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 2012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시설을 이용하고 퇴소한 회원 35명을 대상으로 기능변화를 위한 사전사후평가, 보호자 인식변화에 관한 보호자 인터뷰, 연계 및 의뢰 경험이 있는 정신보건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연구결과** : 단기집중재활서비스를 받은 35명의 이용자들은 전반적인 기능수준, 정신병리, 일상생활기능, 삶의 질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보호자의 경우 5점 척도에서 평균 4.6점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으며, 이용자의 기능향상과 보호부담에 대한 경감, 재활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였다. 정신보건전문가들은 단기집중재활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일상생활, 사회기술, 사회적응, 병식, 재활욕구, 가족관계 총 6개 영역에서 모두 향상되었다고 인식하였다.
- **결 론** :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단기집중재활서비스는 정신질환자의 기능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의 주거전달체계 내에서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정책방안 확립이 필요하다.
- **주요용어** :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단기집중재활서비스

## Abstract

- **Objective** :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were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short-term intensive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o provide a preliminary data for developing effective and specialized services of Halfway house.
- **Methods** : Pre- and post evaluation for the assessment of functional changes was done to the 35 clients who were discharged from one halfway house located in Seoul city from January, 2012 to March, 2013, and interview with the family members was done, too. And also survey for the mental health practitioners who had a experience of referring clients from or to the halfway was performed.
- **Results** : The study showed that service users who received short-term intensive rehabilitation services were generally improved their function, psychopathology,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Family members show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average 4.6 of 5 points scale) especially in the areas of social burden and hope for rehabilitation. Mental health practitioners responded that clients' improvement were observed in all the six areas that is ADL, social skills, adjustment, insight, rehabilitation needs, and relationship with family members.
- **Conclusion** : Short-term intensive rehabilitation services of halfway house were proved to be effective for the improvement of serious mental illness. The role of halfway house should be recounted and it's political consideration is needed.
- **Keyword** : Halfway House, Short-term intensive rehabilitation services

1 \_ 서울시 의료지원형 사회복귀시설 누리봄

\* 본 연구는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연구지원팀의 지역사회 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 I. 서론

현대사회는 급변하는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 중 인간성 상실과 인간소외, 가족구조 붕괴, 사회적 지지의 상실은 정신질환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는 정신질환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반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인력은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설령 치료기관이 있더라도 수용위주의 치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후 의료적 접근 방식인 치료 및 보호 중심에서 보건 및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정신질환자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주거시설 등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서동우 외(1999)는 정신보건시설 입원 및 입소환자의 재원적절성 및 재분류 연구를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54.4%는 기능장애 정도와 사회적 지지체계를 고려하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중 입원 및 입소환자의 23.4%는 지역사회 시설로의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사회로의 복귀가 필요한 추계치를 보면, 최소 2,494명을 위한 훈련시설과 934명을 위한 주거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2004년 '서울정신건강 2020' 장기적인 정신보건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1차 4개년 동안 서울시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를 위해서 주택공사의 장애인임대주택 일부를 확보하여 주거시설 7개소와 Halfway house 4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였다. 주거시설은 실질적인 독립에 필요한 기능 수행을 위해 직업재활 및 주택마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Halfway house는 정신의료기관과 지역사회의 중간단계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질환에 대한 인식변화와 기초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시설로의 연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재배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Halfway house 및 공공주거시설 입소자 기능평가를 통한 효과성 연구'(오정하 외, 2009)에 따르면, 각 거주유형에 따른 서비스는 한 곳에 편중되거나 장기입소 등의 정체현상을 최소화하여 대상자들의 단계별 사회복귀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결과에서도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대상에 비해 Halfway house를 통해 의뢰된 대상이 입소 초기에는 GAF, 실무자관점 지역사회통합, 입소자관점 지역사회통합, 자존감, 삶의

만족도 등 모든 부분에서 낮았으나, 입소 후 1년 시점에서 재평가 시에는 큰 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주시설의 단계적 서비스가 입소대상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Halfway house가 주거전달체계 내에서의 중간단계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Halfway house는 서울시만의 모델로 관련 선행연구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며, 주거스펙트럼에서의 단계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Halfway house만의 단기 집중재활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Halfway hous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과성을 다각적으로 측정하여 Halfway house 고유의 효과적이고 특성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현재 서울시에만 있는 Halfway house 모델을 타 시도에 확대 설치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정신장애인 주거서비스

2013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아니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응훈련, 작업훈련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주거서비스와 관련된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신질환자 생활시설은 입소생활시설과 주거제공시설로 구분되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각 시설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입소생활시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직업재활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로 50명 이하의 정원으로 운영' 하는 곳이다. 반면 '주거제공시설은 정신질환자가 일정 정도 자기관리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생활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으로의 복귀, 재활, 자립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시설로, 정원 10명 이하로 운영' 하는 시설이다.

국내외 주거서비스의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서규동(2000)에서는 '주거서비스의 모형과 종류는 각 나라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병원구조에 가까운 주거시설에서 기능이 좋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제한이 덜하며 감독인의 역할이 적은 형태의 주거로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라고 하였으며, 양옥경(2006)은 '정신장애인 주거에 관한 스펙

트럼들을 포괄 정리하여 응급주거시설, 훈련주거(중간집, halfway house), 지원주거시설, 지지주거(support housing), 독립주거' 5단계로 제한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성 여부, 직원의 수 및 감독기능 수준, 거주자의 생활에 대한 지지정도에 따라 그룹홈, 임시거주 집, 대규모숙식시설, 관리감독을 받는 아파트, 준 독립아파트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한국정신보건사회사업학회, 2004 : pp.379-382).

양옥경(1999)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에서 중간집(Halfway house)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1954년 미국 메사추세츠 주 보스턴에서 루트랜드코너하우스(Rutland Corner House)를 운영한 것을 시초로 하며, 지역정신보건센터가 퇴원한 환자들을 돌보는 의무를 소홀히 함과 동시에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사회에서 가능성이 가장 큰 치료 장소로 기술하고 있다. 중간집(Halfway house)은 덜 조직적이고 덜 집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주거환경이며 그룹홈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데 초점을 두고 여러 명의 정신장애인이 한 집에 머물면서 24시간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집에서 생활하는 기술, 대인관계기술, 자아조절훈련을 하게 되며 치료진은 기술 수행정도를 매일 평가하고 지지와 일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제시하고 있다.

국내 입소생활시설은 위에서 제시한 주거서비스 스펙트럼 중 중간집(Halfway house) 모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입소생활시설은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중간단계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동체 생활과 사회응응훈련을 실시하여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년 단위로 평가하여 2회까지 연장가능한 곳이다.

서울시 Halfway house의 경우 법적으로는 입소생활시설로 분류되나 기존의 입소생활시설과는 차별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탈원화를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를 입소 대상으로 하는 부분, 25인의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부분, 2주에서 3개월 단위로 1회 연장 가능하여 운영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즉, 두 기관은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중간단계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설립 목적 및 운영방식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서울시 Halfway house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정신보건시설로서 단기집중적 재활훈련체계와 안정적 지역사회 진입을 위한 전환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현재 4개소의 Halfway house가 운영되고 있다. 운영지침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과 치료를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탈원화 사업으로서 입원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약 2주 동안 맞춤형 지역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참여 대상자에 대한 심리사회적 사정 및 재활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 종료 후 지역사회로 연계한다. 둘째, 입소 이후 제공되는 '단기집중적 재활훈련 서비스'는 기본 3개월 동안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사례관리자 1인당 평균 4~5명의 대상을 관리하고 있으며, 욕구에 기반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회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통한 장단기 목표 수립 및 응급지원 등 즉각적이며 적극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Halfway house는 퇴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퇴소 유형에 적합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지역사회 전환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퇴소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월 2회 이상 전화 및 내소의 형태로 기관연계 혹은 정보제공 등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외 주거서비스의 종류 및 유형, 입소생활시설 및 Halfway house를 비교하여 살펴볼 때, 기능과 역할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주거서비스 설치 및 운영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 주거서비스 유형에 따른 서비스 효과성 연구가 전무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2. 서비스 효과성 분석

Halfway house가 주거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에 대한 논의는 그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고,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근거로 정책에 반영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권의정, 2004 재인용).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에 따른 효과에 대한 검증형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김이영(2004)의 연구에서 '첫째는 가장 보편적이고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방법으로 단일프로그램이 정신장애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며 '둘째는 다양한 정신재활프로그램 즉, 약물증상관리, 직업재활, 사회기술훈련, 일상생활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들로 구성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하나의 개입으로 간주하여 프로그램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단일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들이 등장'하였고(김이영, 2004 재인용). 이에 대한 예로, 김이영(2004)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한 다양한 서비스를 하나의 포괄적인 개입으로 간주하여 1년 동안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설을 이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전체 기능점수와 일상생활수행기술이 향상'됨을 보고하였다. 배성우·김이영(2008)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의 기능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하여 제시한 바 있다.

위에 제시된 연구들은 대부분이 정신건강증진센터, 낮병원, 주간